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Our News 공공ON Vol.02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식 SNS 바로가기



DPFC Spotlight

공단 소개 LIVE 공단을 혁신으로 이끌어가는 연구분석팀 탐방기	04
키워드 반사회 공단인들이 들려주는 운동과 함께 보내는 윤택한 하루	08
힐링 가이드 공단인들을 따라 걷는 대구 한 바퀴	10
모두 함께 공단 LIFE 노사 한마음 화합대회, 노사 한마음 걷기대회 현장 스케치	12
나눔 네컷 앨범 사과 한 알에 담긴 나눔의 미학 더이음봉사단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 일손돕기 봉사	14
히어로 상영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입사원들의 공단 이야기	16

DPFC Delight

일상 리포트 아이가 셋, 행복은 세배! 다자녀 가족의 우리 집 이야기	18
그린 에세이 ESG 경영의 시대, 친환경과 함께 실천해야 하는 가치	20
대구 나들이 겨울의 낭만을 고스란히 안은 나들이 코스	22
지식 더하기 사격으로 만들어가는 경쾌하고 건강한 일상	24
행복 만들기 신혼을 맞은 4명의 원데이 클래스 추억이 달콤하게 구워지는 시간	26
시민행복 NEWS	30

발행 2024년 12월(통권 제2호)

발행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발행인 문기봉

기획·편집 기획조정실 소통홍보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하수처리, 소각처리, 매립처리 등 환경시설과
도로, 가로등,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
도시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현장을 지키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 1 두류수영장
- 2 대구국제사격장
- 3 대덕습시장
- 4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 5 서재문화체육센터
- 6 대구실내빙상장
- 7 명복공원
- 8 대구콘서트하우스
- 9 범어지하도상가
- 10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11 2·28기념중앙공원
- 12 경상감영공원
- 13 박정희광장(동대구역광장)
- 14 대신지하상가
- 15 대구역지하상가
- 16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
- 17 테크노폴리스로
- 18 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 19 신천수변공원사업소

- 1 신천하수처리장
- 2 서부하수처리장
- 3 달서천하수처리장
- 4 북부하수처리장
- 5 지산하수처리장
- 6 안심하수처리장
- 7 현풍하수처리장
- 8 섬서사업소
- 9 상리사업소
- 10 환경자원사업소





공단을 혁신으로 이끌어가는 연구분석팀 탐방기

지난 11월 5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는 새로운 소식으로 활기가 돌았다.
그 소식은 바로 공단 최초로 신축된 환경연구관의 개소식! 고소한 시루떡이 오갔던
환경연구관은 신축 건물답게 누구나 꿈꾸는 깔끔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이번 공단 소개 LIVE는 환경연구관에 등지를 뜬 연구분석팀을 찾아가 보았다.

시민의 하루를 ON!

쾌적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숨은 노력, 연구분석팀

시민들이 살기 좋은 대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손길이 필요할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다양한 부처와 수많은 공단인은 힘을 합쳐 깨끗한 환경을 만들며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맑은 물의 신천과 함께 연구분석팀을 떠올려 보자. 연구분석팀이 쉴 틈 없이 달려와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분석팀은 대구의 환경기초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연구 개발과 분석, 기술 개발 등으로 공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대구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을 매일 분석해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분석을 통해 대구의 전체적인 수질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처리 과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대내외적인 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공단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협력과 상생으로 이루어내는 성과

연구분석팀은 연구 분야와 분석 분야로 나뉜다. 연구 분야에서는 환경 신기술 개발, 환경 영향 조사·연구 사업 등 주로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테스트베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분석 분야는 하수, 분뇨, 음식물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한 각 처리장 공정수를 통합 분석하고 정도관리 검증기관으로서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의 사업소와 협력할 뿐만 아니라 외부업체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며 사업소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혁신 기술은 (주)우진과 공동연구개발한 수직형 교반기와 이물질 제거가 용이한 임펠러다. 이 두 가지 기술은 공단 내 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해 전국 환경기초시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 물 기업인 (주)우진과의 협업으로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이는 공단의 ESG 경영 실현과 상생발전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OFF



단단한 결속력으로 꿈꾸는 내일

단체 사진을 찍는 중에도 이야기가 멈추지 않았던 연구분석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는 모습은 연구분석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해준다. 소통의 힘과 각자의 능력이 합쳐져 만들어진 연구분석팀만의 결속력은 앞으로의 행보에 원동력이 된다. 연구분석팀은 향후 시험·검사 분야 업무 확대 추진, 환경기초시설 지원 강화, 국비지원 연구 개발 및 R&D를 통한 현장 맞춤형 처리장 운영 개선 등 공단 내외부를 오가며 중흥무진할 계획이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연구분석팀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알토란 같은 역할로 보탬이 되고 있다. 연구분석팀이 만들어가는 내일에 응원으로 함께해 보자.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보내는 시간

지난 2014년, 공단은 하수처리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험실을 하나로 통일하여 연구·분석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10년이 흐른 지금, 연구분석팀을 중심으로 공단은 수질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올해 연구분석팀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환경연구관'의 탄생은 반가운 소식이다. 연면적 1,931㎡에 2층 건물로 13개월의 공사 기간 끝에 문을 연 환경연구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실험 공간을 확보했고, 정도관리 검증기관 업무에 최적화되었다. 실험공간은 주시험실, 기기분석실, 생물시험실, 슬러지 시험실 등으로 구성되어 모든 연구 개발을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연구분석팀은 대형 연구과제보다는 공단 곳곳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노후화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업 부서 직원의 R&D 요구를 모아 전 공단에 적용이 가능한 현장수요형 R&D를 발굴하였다. 6월에는 지역의 밸브생산 업체인 (주)동해와 MOU를 체결하여 기존의 문제를 개선한 '소프트시트 이용 유지관리가 용이한 밸브 개발' 과제를 추진했다. 밸브의 슬립화·경량화, 조립방식 개선 등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대표적인 과제다. 연구분석팀이 목표하는 '살기 좋은 대구'에는 역시, 공단의 동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분석팀의 공단인 TALK

최정은 대리 분위기가 자유롭고 단합이 잘 되는 점이 저희 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올해 7월에 복직한 건데, 덕분에 업무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단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박지은 주임 매일매일 해야 하는 반복적인 일이 많은데도 그 업무를 잘 수행하는 점이 존경스럽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입사 이후 계속 연구분석팀에 있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새롬 주임 팀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정은 대리, 지은 주임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두 분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늘 고맙고 제가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지원팀
이상인 주임사업총괄팀
구세현 주임재난관리팀
이상목 과장신사업개발팀
이호준 대리

키워드

다양한 운동의 세계! 하는 운동, 보는 운동 등 운동을 알차게 즐기는 법을 알아보자.

공단인들이 들려주는 운동과 함께 보내는 유택한 하루

Q 운동을 즐기는 나만의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이호준 대리 일주일에 서너 번 달리기를 해요. 아무래도 여럿이서 하는 운동은 상대가 필요해서 약속을 잡거나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달리는 혼자 할 수 있으니 비교적 간편해요. 또 휴대폰 어플로 달리기 속도를 점검하고 기록을 확인하는데, 전보다 나아지거나 목표치를 달성하면 큰 성취감이 들어요. 변화가 눈에 보이고 조금씩 건강해지는 걸 느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게 원동력이 되어 운동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던 편은 아니었는데, 건강도 이유였지만 와이프가 러닝화를 선물해준 것도 계기가 되었거든요. 시작이 어렵다면 우선 장비부터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 놓으면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Q 운동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구세현 주임 운동을 하다 보면 잡생각이 없어져요. 몸을 계속 움직이니깐 밤에 잠도 잘 오고요.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희열도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합니다. 몸이 좋아진 것도 운동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입사할 당시에만 해도 주변에서 말랐다는 얘기를 많이 들곤 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근육도 붙고 살도 붙으면서 체격이 좋아졌어요. 가끔 운동이 지루해질 때도 있지만, 그때는 직장 동료들과 스케줄을 짜서 같이 운동을 나가요. 함께 하면 어떻게든 운동을 하게 되죠. 사내에 축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 동호회가 있거든요. 동호회 지원금으로 장비도 구매하고, 많은 사람과 어울려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주변에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Q 운동을 통해 얻은 효과를 소개해 주세요.



이상목 과장 운동과 함께 식단 관리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을 해도 체지방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은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근할 때도 도시락을 싸서 다녀요. 주중에는 닭가슴살을 싸서 다니고, 주말에는 단백질이 많은 육류를 먹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먹으니 신체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쌓은 것도 운동을 통해 얻은 효과예요. 저는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배드민턴 같은 팀 스포츠를 즐기면 서로 끈끈해지죠. 지금 구세현 주임과 같이 사내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직장 동료들과 운동으로 만나다 보니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Q 마지막으로 동료 직원에게 추천하고 싶은 운동 팀이 있나요?



이상인 주임 확실히 운동은 재미가 있어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사내 동호회가 생각난 거죠. 다른 분들도 말씀해주셨듯이, 사내 동호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덕분에 다양한 운동을 체험해볼 수 있었어요. 최대한 많은 운동을 시도해보고 나에게 잘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외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사내 동호회에 들어온 건데, 외부 동호회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어울리기 힘들었어요. 사내 동호회는 아무래도 동료 직원들이 있다 보니 더 잘 알려주어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흥미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단인들을 따라 걷는 대구 한 바퀴



소통홍보팀 김다영 팀장이 소개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본사부터
앞산 카페거리까지

공단을 연결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본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본사는 시민과 부서, 각각의 사업을 연결하기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대명동에 위치해 있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처, 미래전략처, 재난안전처가 본사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다른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시민의 생활과 이어지는 부서도 함께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나드리콜’을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 공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을 운영하는 교통운영처 등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설에도 공단인들의 손길이 닿는다. 그중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하는 대구 곳곳의 부서를 알아보고 공단인들이 직접 추천하는 명소로 함께 떠나보자. 사색을 즐기기에 좋은 앞산부터 가족과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대명유수지까지, 공단인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대구의 구석구석을 소개한다.

김다영 팀장은 기획조정실 소통홍보팀의 일원으로서 대구시민들과 소통하고 공단의 행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업무에 하루하루가 바쁘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공단의 역할을 알리며 공단과 시민 사이의 관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있다.

김다영 팀장 PICK! 앞산 카페거리

앞산 자락을 따라 많은 카페가 자리 잡은 ‘앞산 카페거리’는 어느새 대구의 명소가 되었다. 김다영 팀장은 왁자지껄한 카페에서 벗어나 편안한 쉼을 느끼러 앞산 카페거리의 ‘가실마루’로 향한다. 조용한 멋을 지닌 카페, 가실마루는 김다영 팀장의 방앗간이라고 한다. 넓고 높은 통창으로 느끼는 계절의 변화, 편한 좌석, 카페가 자아내는 잔잔한 분위기는 김다영 팀

장의 마음을 절로 편안하게 만든다. 평소 업무로 머리와 마음이 무거울 때 가실마루로 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보자.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명소 추천 PLUS

“평소 출퇴근길에 앞산 전망대 앞을 자주 스쳐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일몰과 도시의 불빛을 함께 즐기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산 전망대에 올라 공단 본사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소의 위치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서부사업지원팀 김윤정 대리가 소개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부터
대명유수지까지

환경을 책임지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는 총 10개의 사업소가 하수처리, 소각처리, 매립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윤정 대리가 근무하고 있는 서부사업소는 대구에서 두 번째로 큰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다. 10만 평 부지에 일 52만 톤의 하수처리시설, 일 1,200㎥의 위생처리장을 운영 중이며, 깨끗한 환경을 위해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약 75명의 공단인이 근무하고 있다. 달서구 전역, 서구, 남구, 달성군 일부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분뇨는 모두 서부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토대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서부사업소의 공단인들은 환경을 위해 한 걸음 더, 시민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구를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김윤정 대리 PICK! 대명유수지

김윤정 대리는 가볍게 산책 삼아 나섰던 길에 억새가 풍성하게 자란 모습에 반했다고 한다. 대명유수지가 선사하는 자연본연의 아름다움, 억새와 갈대가 만들어내는 가을의 풍경에 가족과 함께 다시 방문했다. 일몰 때 방문한다면 높은 하늘과 대명유수지의 분위기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어진 길에는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이 있어 아이들에게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장소가 된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눈으로 즐기고 직접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대명유수지로 가보자. 자연이 우리에게 축복처럼 내리는 선물에 절로 들뜨게 되는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다.

명소 추천 PLUS

“기다리던 달성화석박물관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공룡, 화석, 화산 등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꾸러진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공간도 제공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손을 맞잡고 함께 걸으며 하나 되는 우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노사의 어울림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지난 10월, 공단에서 열린 화합의 장을 소개한다.

굳었던 몸을 풀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던 현장을 방문해 보았다.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 삼아 사진을 남기던 공단인들의 순간을 포착했다.

노사 한마음 화합대회 10.24 북부사업소

480여 명의 공단인들은 노사 한마음 화합대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북부사업소의 넓은 운동장에 모였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으로 시작을 알린 화합대회에 문기봉 이사장, 성임택 경영관리본부장, 권순필 통합노동조합 위원장, 박성재 시설노동조합 위원장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강신우 주임과 이수경 주임이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을 대표해 선서문을 읽으며 개회식이 마무리되었다.

이날 공단인들은 그간 단련해온 운동신경을 마음껏 뽐냈다.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하늘 높이 슛, 색판 뒤집기 등 다양한 명랑경기를 치렀다. 운동에는 안전이 최우선! 준비체조로 몸을 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던 공단인들의 표정에서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아나운서의 활기찬 진행에 응답이라도 한 듯

공단인들은 성실히 경기에 임했다. 사실 경기라고 하면 경쟁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만, 운동장에 모인 공단인들은 연신 웃음을 지었다. 명랑경기 결과는 청팀의 완승, 백팀은 아쉬운 기색 없이 박수를 치며 축하 인사를 보냈다. 오늘 준비된 노사 한마음 화합대회를 한껏 즐기는 모습이였다.

많은 이들이 어울리는 곳에선 역시 공연이 빠질 수 없다. 4인조 혼성 밴드 '카운트다운'이 무대에 올라 흥을 한층 돋웠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흥얼거렸다. 말 그대로 '화합의 장'이었다. 반응이 뜨거웠던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10월의 노사 한마음 화합대회는 막을 내렸다. 문기봉 이사장은 “오늘 화합대회를 통해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가족처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미소 지었다.



노사 한마음 걷기대회 10.31 가산수피아

가을의 절정을 느낄 수 있었던 10월 31일, 철국 가산수피아에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이 노사 한마음 걷기대회에 참여했다. 가산수피아에 들어서자 알록달록한 단풍이 눈에 들어왔다.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가산수피아 내 미술관에 집합한 공단인들은 단체사진으로 걷기대회를 시작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준비된 현수막을 펼치고 함께 모여 환히 웃는 공단인들의 모습은 꼭 화창한 날씨를 닮았다.

첫 번째 일정은 미술관 관람, 도슨트는 미술관의 작품을 하나 하나 소개하며 공단인들을 이끌었다. 관심 있는 작품을 유심히 살피고 도슨트의 설명에 경청하며 미술관 곳곳을 누볐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진중하고도 가볍게 작품을 감상했다.

본격적인 걷기대회는 핑크몰리 탐방에서 출발했다. 푸르름을 자랑하는 굳센 나무를 등지고 한가득 자란 핑크몰리는 포토스팟으로 제격이었다. 동료들과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남긴 공단인들은 흐르는 시간이 아쉬운 듯 발걸음을 늦췄다. 맨발 걷기를 체험할 수 있는 황토길도 인기였다. 출발점에 신발을 가지런히 두고 부드러운 황토길을 맨발로 따라 걸었다. 굽이굽이 길게 이어진 길을 걸으면서도 웃음은 잃지 않았다. 정성스럽게 조성된 가산수피아를 발걸음으로 경험하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그대로 느꼈다.

마지막 도착지는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카페. 쉼을 누리며 동료들과 단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동료들과 소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하루, 걷기대회가 주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을까.



사과 한 알에 담긴 나눔의 미학

이른 아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더이음봉사단이 도착한 곳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안동시 도산면이었다. 도산면은 대구의 새로운 취수원이 될 안동댐 최상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손 돕기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더이음봉사단은 사과 따기에 열중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더이음봉사단의 알찬 하루와 권우선 이장이 반겨주는 도산면을 함께 만나보자.



경쾌한 발걸음으로 향한 도산면의 사과 농장

차가워진 공기에 몸을 움츠리게 되는 날씨였지만 더이음봉사단은 빠르게 몸을 움직이며 사과 농장 곳곳을 누볐다. 도산면 마을회관에 도착한 더이음봉사단은 봉사 조끼를 입고 권우선 이장이 안내하는 사과 농장으로 이동했다. 사과 농장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잠시 걷는 동안 비치는 강한 햇살에 더이음봉사단 단원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었다. 넓은 부지의 농장에는 수확을 기다리는 사과들이 나무에 달려 있었다. 권우선 이장의 설명에 따라 사과 따기 작업을 하는 인원과 사과 선별 작업을 하

는 인원으로 나뉘었다. 익숙하다는 듯이 장갑을 끼고 나무를 살피는 더이음봉사단의 모습에서 능숙함이 절로 느껴졌다. 키가 큰 사과나무를 마주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함께 사과를 따고, 사과가 가득 담긴 박스는 협력해 옮기며 봉사에 매진했다. 탐스럽게 열린 사과를 발견하면 핸드폰을 꺼내 인증샷을 남기고, 서로 좋은 사과를 따다며 자랑하기도 했다. 쉬는 시간에는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나눠서 먹기도 했다. 한 손으로 사과를 가르는 모습에 감탄하며 베어 문 사과 한 입. 도산면의 청정함과 싱그러움이 입 안으로 가득 퍼졌다. 아침 일찍 이동한 탓에 느끼던 피로도 가시는 것이었다.



봉사의 묘미는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

봉사활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처음 방문한 농장뿐만 아니라 다른 농장에도 들러 사과 수확 작업을 이어갔다. 묵묵하게 사과를 따는 이, 함께 온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도산면 주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이 등 더이음봉사단 단원들의 모습은 제각각이었다. 예전 봉사활동을 갔을 때 추억을 되새기고 소소한 주제로 말을 주고받으며 친목을 쌓았다. 더이음봉사단은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동시에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동료들과의 결속력도 다진다. 오전 봉사활동을 끝내고 마을회관으로 돌아와 점심을 나눠 먹는 풍경이 정겨웠다.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 마을에서 내어온 편육과 배추전 등 허기를 채워줄 찬이 식탁에 가득했다. 일한 후에 먹는 점심이기에 더욱 맛있는 식사였다. 더이음봉사단이 수확한 사과는 박스에 고이 담겨 구매를 원하는 직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맛 좋은 사과를 공동 구매하여 마을에 이익까지 가져다주는 상생의 실천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일꾼이 되어주고, 농산물 구매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더이음봉사단의 선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더이음봉사단은 더운 날씨에도, 요즘처럼 부쩍 추워진 날에도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눔의 자세를 굳게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더이음봉사단의 의미 있는 발자취를 따라가며 응원을 보내 보자.



MINI INTERVIEW

도산면 권우선 이장님 안녕하세요 '공공ON' 독자 여러분. 저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산면 단천리 권우선 이장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더이음봉사단이 일손 돕기를 위해 도산면에 찾아왔는데요. 사실 여전히 농촌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더이음봉사단이 방문해 사과 수확을 도와주면 상당히 고맙지요. 일손에도 도움이 되지만, 공단에서 농산물을 공동 구매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규모 농장이다 보니 이렇게 공단과의 협력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손 돕기, 공동구매 등 다양한 부분에 힘을 주고받으며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뉴페이스! 신입사원들의 요모조모 공단 이야기

● 경영정보팀
김영준 주임



● 동부자산운영팀
황영재 주임



현재 돌아보며

Q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의 첫날을 기억하시나요?
합격 소식을 알았을 때의 소감과 설레는 첫 출근날에 대해
말해주세요.

A

김영준 주임 합격했다는 걸 알았을 때 사실 기쁜 감정보다는 얼떨떨한 느낌이 더 컸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점점 실감이 났죠. 첫날 팀장님과 본사 전 층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러 갔던 게 기억에 남아요.

황영재 주임 처음 출근하던 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동부사업소 견학을 왔거든요. 초등학생들과 같이 앉아서 동부사업소 설명을 들었어요. 눈높이 교육을 받아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한열 주임 솔직히 말하자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축하 연락을 받고 나서 '이제 됐다.' 하는 생각과 함께 되게 기뻐요. 첫날에는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인수인계를 받다가 인사드리러 가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남경 주임 소식을 특이하게 알았어요. 합격 발표가 난 당시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계속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게 귀국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렇게 회사에 다니게 되었죠.

어엿한 직장인으로

Q 이제 약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까지의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A

김영준 주임 나름대로 적응 중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다시 해야 할 때도 종종 있거든요.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다행인 점은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상사분들이 바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늘 감사하고, 빨리 일에 적응을 해야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영재 주임 혼자 동부자산운영팀에 발령받아 그런지, 유독 예뻐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2인 1조로 교대 근무를 하는데 조장님이신 김문호 차장님께서 신입사원인 저를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르는 게 많다면 이거저것 물어볼 때가 많은데 언제나 성심성의껏 알려주세요. 또 어려운 부분은 직접 해주며 도와주시니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큼니다.

안한열 주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때랑 업무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데 잘 안 돼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떻게든 해결되더라고요. 주위에서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요. 공무원 때 인연이 있었던 한장성 과장님께서 제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매일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고 커피도 사주셨거든요. 당시에도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고맙습니다.

이남경 주임 지금은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다른 업무였거든요.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어떤 분이든지 편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커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민원 전화를 받을 때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과장님이나 대리님께서 든든하게 도움을 주셔서 마음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뜻밖의 신입사원들이 2024년 8월 1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첫발을 내디뎠다. 히어로 상영회에서는 4명의 신입사원을 모아 공단과 동행하는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이었지만 떨림과 설렘이 동반한 목소리에는 공단인으로서의 결연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두근두근 새내기 시절을 회상하며 그들과 함께 나눈 대화를 읽어보자.

● 연구분석팀
안한열 주임



● 교통운영팀
이남경 주임



앞으로도 공단인!

Q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여러분께 어떤 곳인 것 같나요? 앞으로의 목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A

김영준 주임 길게 다닌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엔 공단은 워라밸이 보장받는 곳인 것 같아요. 눈치보지 않고 퇴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재 주임 공단은 보이지 않는 손 같습니다. 시민들이 잘 모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는 곳이라는 게 느껴져요. 제 업무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두루두루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안한열 주임 알고 보면 공단은 구석구석 숨겨진 업무가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지금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생각해보면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좋은 선배들에게 많은 걸 보고 배웠는데 저도 나중에 후배들이 생긴다면 좋은 선배가 되고 싶어요.

이남경 주임 처음 딱 느낀 게 '분위기가 진짜 좋다'였어요. 저는 사람이 좋아야 일할 맛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좋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두루두루 화합하고 마주하며 소통하는 공단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팀원들에게 보내는 애정 담긴 메시지

김영준 주임 3개월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적응하느라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잘 적응해서 모두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재 주임 동료분들이 배려해주시고 희생해주신 덕에 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한열 주임 금쪽이 후배, 열심히는 하는데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경 주임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습니다. 탄 데 보내지 마세요!



아이가 셋, 행복은 세 배! 복작복작한 우리집

함께여서 행복한 말이 잘 어울리는 네 명의 공단인들을
운치 좋은 카페에서 만났다. 3명의 자녀를 두고 도란도란
가족을 꾸리고 있는 이들은 아이들 얘기를 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그들의 일상에
주목해 보자.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우리
청렴윤리팀 이정길 팀장
2남 1녀

저희 애들은 벌써 20대예요. 사실 아이들이 한창 클 때는 힘든 부분도 많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셋 다 대학교에 다닐 땐 한 학기 등록금이 어마어마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즐거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키울 땐 힘들지만 다독여가며 살아가다 보면 나이 들어서 후회는 절대 하지 않을 거란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가족끼리 어딜 같이 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곤 한답니다. 딸 하나 아들 둘, 늘 든든하죠. 그리고 형제간 사이도 좋거든요. 스무 살이 넘으면 육체적으로 다 자랐을지 몰라도 아직은 애예요. 말 못 할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토닥여주면서 힘이 되어줍니다. 키우는 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말괄량이들
서부사업지원팀 이승민 팀장
1남 2녀

저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과 같이 지내고 있어요. 결혼할 때부터 애 셋은 가지고 싶단 생각을 했어요.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선례가 되었죠. 처음에는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한창 크는 중이라 그런지 아주 죽겠어요. (웃음) 말만 잘 들으면 그냥 예쁘죠. 하루는 딸이 저랑 다투었는데, 첫째가 조용히 가서 위로 해주더라고요. 형제가 여러 명 있다는 건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애들이 어리긴 하지만 먼 미래에도 이렇게 셋이서 잘 지낸다면 그만큼 좋은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애를 낳을 때마다 '집 한 채는 내가 해주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애들을 생각하면, 그 집 한 채는 유효하니까 이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말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살뜰하게 지켜주는 가족
범어지하도상가 박은주 관리장
1남 2녀

딸 둘과 늦둥이 막내가 있어요. 원래 딸 다섯을 낳고 싶었는데, 반 정도는 이론 셈이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을 공단으로 옮긴 경우예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인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한창 자랄 무렵에 동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서 아이들을 엄청 예뻐해 주고 챙겨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덕분에 애들을 잘 키운 것 같아요. 늘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 둘이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 통장에 매달 돈을 넣어서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곤 해요. 처음에 막내가 늦둥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오는 장점도 있어요. 누나들이 막내 고민을 들어주고 저 대신 이것저것 사주기도 하죠. 종종 힘든 거 내색 없이 자기들끼리 해결하곤 하던데, 보고 있으면 애뜻하고 기특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씩씩하게
이동관리팀 김종선 주임
1남 2녀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만 지켜 보면 세 아이들의 개성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전부 다르죠.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해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가정을 이루면서 시야가 많이 넓어졌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커지고 책임감도 보다 강해졌죠. 그 마음이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심어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사업소를 아이들과 다니며 "아빠가 다니는 회사는 대구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곳이다" 얘기도 하고, 언제나 자부심을 품고 살라는 말을 자주 해요. 나라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서 잘 자랐으면 합니다.

ESG 경영의 시대, 친환경과 함께 실천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사기업(私企業)이나 공기업(公企業) 등 모든 기업들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 추구를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라는 3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ESG 경영의 가치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

ESG 경영의 진정한 가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실현될 수 있다. 단순히 환경 보호 활동을 펼치는 것을 넘어, 임직원의 다양성 존중, 지역 사회 공헌, 투명한 의사결정 등 ESG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ESG 경영은 공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SG가치 실현이 경영진의 명확한 목표가 되고, 조직구성원들에게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가 제시됨으로써 공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과 위상 또한 강화될 수 있다.

친환경과 함께 실천해야 할 가치들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경영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친환경적인 경영 전략을 통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지방공기업은 탄소중립 달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자원 순환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친환경 경영 전략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전기차 도입, 에너지 효율화, 그린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경 투자에 힘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자원 보호와 환경오염물질 감축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방 공기업은 인권 보호, 노사 협력 강화, 산업 안전 확보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역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 시민 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윤리경영과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방 공기업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 공기업은 ESG 경영을 통하여 단순히 경영 효율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을 거듭함으로써 지역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쌓고, 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ESG 경영 발전 방향 제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2022년을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친환경 혁신 공공서비스를 선도하는 시민의 공기업”이라

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실행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공기업평가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기준의 변경에 따라 공단의 ESG 경영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을 제언해 본다. 첫째, 공단은 서비스 가치창출-가치전달-가치측정 등 서비스 가치사슬 각 단계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 가치사슬의 가치창출 단계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치전달 단계에서는 서비스가 지역 시민에게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가치측정 단계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성과를 ESG 관점에서 투명하게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단의 ESG 경영은 ESG 비전과 전략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체계와 ESG 공시 기준에 연계하여 ESG 경영을 실행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체계에는 ESG 관련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단은 이러한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달성하여 ESG 경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ESG 공시 기준에 맞춰 ESG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공단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공단이 제공하는 환경, 체육, 문화 등 공공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지역 시민들이 만족스러운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단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서비스 마인드와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공공서비스의 가치와 만족도를 높여, 공단이 지역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SG 경영은 미래 세대를 먼저 생각하는 경영 철학이라 할 수 있다. ESG 경영을 통해 공단이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글 한영도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칼럼니스트

문화예술과 역사가 함께하는
생동감 넘치는 하루



겨울의 낭만을 고스란히 안고 대구에서 누리는 시간

추운 날씨에 몸을 움츠리게 되지만, 겨울이라는 계절만이 주는 낭만이 있다. 문화예술과 역사를 안은 대구의 명소에서 낭만의 조각들을 찾아보았다. 공공이와 함께 겨울을 맞은 대구를 거닐어보자.



01



음악이 만들어내는 울림 대구콘서트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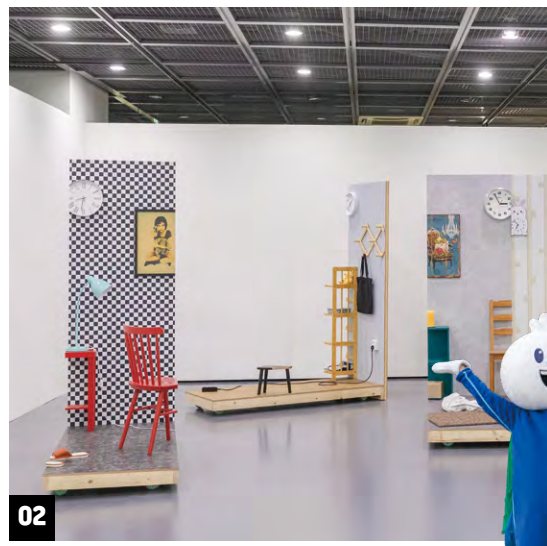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41

1975년부터 변함없이 한 자리를 지킨 대구콘서트하우스는 당시 ‘대구시민회관’으로서 대구경북권의 유일한 종합공연장이었다. 재개관, 명칭 변경 등을 거쳐 변화한 끝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구콘서트하우스가 되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최상의 음향과 품격을 갖춰 음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국내외 아티스트를 초청하고 있으며, 매년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시민들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문화예술이 넘실거리는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분주했던 한 해를 정리하며 연말 공연을 관람해 보자.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혹은 겨울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기러 사랑하는 이와 함께 와도 좋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무얼 기대하든 그 이상의 경험을 선사해줄 것이다.

대구의 문화예술을 가로지른다

대구예술발전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2길 31-12



도심에서 만나는 탁월한 운치 청라언덕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29

대구의 근대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청라언덕은 도심 속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다. 이곳은 20세기 초 선교사들의 집이 푸른 담쟁이덩굴로 뒤덮여 있어 ‘청라(靑蘿)’라고 불리게 되었다. 스위트, 챔니스, 블레이 선교사들이 머문 주택은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역사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다. 특색 있는 주택을 하나하나 눈으로 살피며 근대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주택과 어우러진 자연도 같이 즐기며 청라언덕이 주는 평화를 가슴 깊이 느껴보자. 또한 청라언덕은 중구 골목투어 제2코스 ‘근대문화골목’의 시작점으로, 인근의 3·1만세운동길, 계산성당 등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찬찬히 근대문화골목을 걸어가다 보면 대구의 도심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청라언덕에서 겨울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예술가와 시민을 위한 아트플랫폼인 대구예술발전소는 2013년 3월 개관하여 예술가에게는 창작의 길을 열어주고, 시민에게는 창의적인 예술을 경험하는 장이 되어주고 있다.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과 소통하고 상상력을 펼치는 무궁무진한 예술의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시실, 만권당, 미디어팩토리, 미디어 월, 창작실험실 등을 갖춰 대구예술발전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총체적인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 대구예술발전소에 들러 작품을 온전히 느끼며 마음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 정적인 전시실이 가진 고요함과 각자의 사연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작품의 조화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방문 시기에 진행되는 기획전이나 대구예술발전소의 행사를 미리 확인해보고 대구의 문화예술을 진득하고 깊이 담아 보자.



03





사격으로 만들어가는 경쾌하고 건강한 일상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사격이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이루어내었다. 이로 인해 사격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격을 취미로 가져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방아쇠를 당길 때의 짜릿함과 정확하게 표적을 맞춘 후의 뿌듯함에 스트레스가 절로 해소된다는 사격! 정적인 일상에 경쾌한 충성으로 즐거움을 찾아주는 사격의 세계로 떠나보자.

사격을 올바르게 즐기는 법

우리는 총으로 일정한 거리의 표적을 맞추는 운동을 ‘사격’이라고 부른다. 국제대회의 종목으로 채택되거나 취미로 즐기는 사격은 정확하게는 ‘스포츠 사격’으로 칭하며 총기에 따라 종목이 구분된다. 권총, 공기소총 등 총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않았어도 알 법한 총기를 사용한다. 우리는 이미 사격과 매우 친밀한 관계다. 가령 동네의 오락실에만 들러도 비비탄을 사용하는 사격 게임을 접할 수 있고 수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스포츠 사격의 스타들을 만날 수 있다. 사격에 관심이 생겼다면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일, 스포츠 사격에 입문하기 위해 사격장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취미로 마니아층은 물론 초심자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는 사격. 이 스포츠를 즐길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어느

전문가를 만나도 첫 번째로 나오는 답은 똑같은 것이다. 단연 안전이다. 어느새 사격은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었지만, 총기가 가진 위험성은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격장에서 알리는 안전 수칙을 꼼꼼하게 읽고 지켜야만 사격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다.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스포츠 사격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사격을 체험한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난이도가 낮아 보이지만, 사실 사격에는 탄탄한 코어 근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거운 총기를 들고 표적을 겨누는 후 방아쇠를 당길 때까지 안정적이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체에 힘을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이 단련되고 지구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도 사격의 효과 중 하나다. 사격은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거나, 표적의 중앙에 가깝게 격발하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원하는 곳에 총알을 보내기 위해서 잠깐의 순간에 목표물에 집중하고, 오로지 사격에 몰두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는 이 집중력의 차이로 메달 색깔이 결정된다고 한다.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 내 손으로 시간을 멈춘 듯한 기분은 사격의 또 다른 묘미일지도 모른다.

대구국제사격장이 선사하는 짜릿한 경험

대구국제사격장은 전문 사격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이자 대구의 대표 사격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넓은 부지에 클레이사격장, 권총사격장, 공기총사격장, 전투체험사격장, 스크린사격장 등 다양한 사격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구시민들에게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실탄사격이 가능한 곳으로는 클레이사격장, 권총사격장, 공기총사격장이 있다.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체험이 가능하며, 사격장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사격장마다 지킴이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대구국제사격장의 장점이다. 사격장의 특성에 맞게 사격 방법을 알려주어 초보자라도 어려움 없이 즐길 수 있다. 또한 지킴이들은 안전 관리를 위해 언제나 사격장에 상주하고 있으니 걱정은 내려두고 오로지 사격에만 집중해 보자. 이번 겨울에는 대구국제사격장에 들러 일상에 신선한 리듬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한 발 한 발 표적에 총알이 꽂힐 때마다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대구국제사격장 안전수칙 알아보기

- 1 안전조끼와 귀마개 착용
- 2 총기를 안전고리에 걸착한 후 사격
- 3 총기 및 장비, 신체 이상 증상 시 안전요원에게 신고
- 4 총구는 공중이나 표적 방향으로 향하기
- 5 사격 후 그 자리에서 실탄 장전유무 검사
- 6 개인 물품은 본인 책임 관리
- 7 안전요원 지시사항 준수



ONE DAY CLASS

고소한 빵 냄새로 가득 찬 가게에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상기된 표정의 남녀가 앉아 있었다. 바로 베이킹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하는 조경팀의 이윤호 주임, 상리사업지원팀의 김은진 대리, 대구북합혁신센터의 김민혜 주임, 북부사업지원팀의 김가영 대리 4명이 그 주인공이다. 신혼부부라는 공통점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단인의 특별한 순간을 담았다.



추억이 달콤하게 구워지는 시간, 신혼을 맞은 4명이 함께 만들어서 더 맛있는 디저트

서로 협동하며 만드는 파운드케이크

겨울의 문턱에 있는 11월, 연말이 다가오면 소중한 이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마음을 전하고 싶어진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평소 고마웠던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4명의 공단인이 베이킹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했다. 처음 보는 사이도 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있어 서로 살갑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어느새 어색한 기류는 금세 사라졌다. 4명은 준비된 재료를 함께 보며 오늘 진행될 원데이클래스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었다. 오늘 함께 만들 디저트는 큐브 파운드케이크다. 파운드케이크는 영국에서 유래한 디저트로, 밀가루와 달걀, 설탕, 버터 모두 각 1파운드(453g)씩만 넣어 틀에 굽는다고 해서 파운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조금이라도 적거나 많으면 안 되고 각 재료가 빠짐이 없어야 하는 파운드케이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인의 모습과 닮았다. 재료 소개와 조리기구 사용법 등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후 이

윤호 주임과 김민혜 주임, 김은진 대리와 김가영 대리가 짝을 이뤄 본격적으로 요리에 돌입했다.

동심으로 돌아간 네 사람

네 사람은 가장 먼저 반죽 만들기에 나섰다. 버터를 전동 휘핑기에 젓고 계란물과 설탕, 박력분을 넣어 다시 저어주는 작업이 이어졌다. 팔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돼 번갈아 가며 반죽을 만드는 네 사람. 서로를 향한 배려가 묻어나는 순간이다. 재료가 분리되지 않기 위해 신중히 반죽을 치대다 보니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적을 깬 건 이윤호 주임의 한마디였다.

“케이크에 설탕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화들짝 놀라는 이윤호 주임의 모습에 다른 직원들도 맛장구를 치며 웃어 보인다. 어느새 모두 긴장이 풀렸는지 반죽을 만드는 내내 업무나 직장생활, 소소한 일상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완성된 반죽은 정확히 140g씩



나누어 그릇에 담아야 한다. 조금의 오차라도 생길까 싶어 모두 말없이 신중히 저울을 보며 반죽을 옮겨 담는다. 두 팀 모두 마지막 그릇에서 1~3g씩 모자란다고 말하며 당황해하다 이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는다. 선생님이 반죽을 덜 때마다 정확히 1g씩 높아지는 모습에 신기해하며 감탄하는 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표정을 띤다.

대화가 끊이지 않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제는 반죽에 맛을 입힐 차례다. 김은진 대리는 레몬과 쿠키앤크림 맛을, 김가영 대리는 말차와 얼그레이 맛을 선택했다. 이윤호 주임은 흑임자와 초코 맛을, 김민혜 주임은 황치즈와 얼그레이 맛을 골랐다. 각자 선택한 맛의 가루를 반죽에 넣고 열심히 섞으니 형형색색의 반죽들이 완성됐다. 찰주머니에 반

죽을 옮겨 담으니 총 모양을 닮기도 하고, 겹치면 하트 모양을 닮았다며 네 사람은 장난을 치기에 여념이 없다. 다음으로는 반죽을 준비된 틀 안에 넣은 후 반죽이 평평해지도록 틀을 들었다가 떨어트리기를 반복한다.

반죽이 구워지는 시간 동안에도 수다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신혼부부인 만큼 신혼집이나 다른 동료의 결혼 소식 등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운다. 네 사람의 정성과 기대만큼 빵 중앙이 봉긋 솟아오른 큐브 파운드케이크의 모습에 모두 눈을 반짝이며 연신 감탄한다.

달콤한 추억으로 남은 하루

베이킹의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 차례는 장식이다. 맛별로 아이싱을 해준 후 말린 레몬, 초콜릿, 아몬드 등의 장식을 올린다. 데코를 하니 저마다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김가영 대리는 거침없는 손길로 빠르게 마무리하는 반면에 김민혜 주임과 김은진 대리는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장식한다. 이윤호 주임은 지그재그로 아이싱하는 등 개성 넘치는 장식을 선보인다. 그렇게 완성된 파운드케이크를 아기자기한 포장지에 옮겨 담고 보니 모두 마음 한편에서 뿌듯함이 밀려온다고 말한다. 베이킹도, 다른 부서의 동료와의 만남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면 상상도 못 할 일었을 테다. 노릇하게 구워진 오늘의 추억이 네 사람의 앞날에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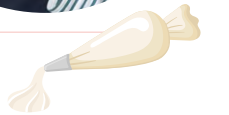


MINI INTERVIEW



● 조경팀 이윤호 주임

베이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걱정됐어요. 동료분들과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만드니 많이 의지가 되고 마음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완성된 파운드케이크는 아내에게 선물로 줄 생각입니다.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소통홍보팀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상리사업지원팀 김은진 대리

평소에 빵을 좋아해서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레몬 맛과 쿠키앤크림 맛의 파운드케이크를 만들었는데요, 레몬 향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오늘 함께 한 동료들이 나중에 제가 만든 파운드케이크를 드실 때 제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구북합혁신센터 김민혜 주임

제가 취미가 베이킹이라 제빵기능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여태 혼자 베이킹을 했었기에 다른 동료들과 함께 빵을 만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2시간 동안 대화도 많이 하고, 장난도 치면서 친해질 수 있어서 즐거웠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만든 파운드케이크는 팀원들과 함께 나눠 먹고 싶습니다.



● 북부사업지원팀 김가영 대리

어머니의 취미가 베이킹이지만, 저는 항상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직접 만들어보니 정교한 작업을 필요로 하더군요. 재료 1g의 차이가 맛을 좌우한다는 것이 신기했었죠. 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남편과 함께 맛있게 나눠 먹고 싶어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뉴스(NEWS)



2024년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9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공공기관발전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 대상기관은 우수한 성과와 지방공공기관 발전 기여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2022~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가 등급 획득), 정부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 및 구조개혁 선도,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 제공, 안전 최우선 경영 강화, 시민행복을 위한 상생경영 실천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여 표창을 수여받았다. 문기봉 이사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임직원이 시민들을 위해 현업에서 묵묵히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환경 및 시설 분야를 선도하고, 지역 성장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임직원 성금 기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9월 11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회에 전달했다. 또한 10월 28일 성금 540여만 원을 한 차례 더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

을 전했다. 성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재난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공단 주최 플리마켓 수익금으로 마련되었다. 직원들이 기증한 다양한 물품 판매로 이루어진 플리마켓 행사에서 판매하지 못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에 기증되었다. 추후 성금은 호우 피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가옥 수리 등 피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4년 하반기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8월 1일 서부사업소 상황실에서 통합 공개채용 1기 신규직원들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된 신규직원들은 2024년 상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한 우수한 인재들로 일반직 73명, 공무원 53명이 합격하였으며, 최종합격한 126명의 신규직원은 환경, 체육, 장사, 도로 등 도시기반 공공시설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기봉 이사장은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우리 공단의 신규직원으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라며 “공단의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신규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소통과 열정으로 고객 감동을 창출하는 공단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격선수단, 제54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우수한 성적 달성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격선수단은 산탄총(클레이) 트랩, 더

블트랩 종목 개인전 1위 및 산탄총(클레이) 스킵트 종목 단체전 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황정수, 조민기, 장자용은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에 이어 스킵트 종목 단체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산탄총(클레이) 트랩 종목과 더블트랩 개인전 종목에서는 오태근과 신현우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센터파이어권총 종목에 참가한 김태영은 2위에 오르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조현진 사격선수단 감독은 “파리올림픽 이후 사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선수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다”며 “2025년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 앞으로 더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 대구 지방공기업 최초 대상 수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9월 27일 제4회 조달의 날을 맞아 개최한 2024년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대구지방공기업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그동안 공단은 공공구매 확산을 위해 혁신조달 발굴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혁신제품을 발굴하였으며, 혁신조달제도와 시범구매사업에도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여 및 기업과의 협업 노력을 인정받았다. 2022년 통합 출범 이후 공단은 혁신제품 구매 실적이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자동소화패치, 복합세정탈취기 등 공단 실정에 맞는 혁신제품을 적극 도입해왔다. 또한, 탄소저감형 순환 중온 개질 아스콘, 고효율 보일러 급수펌프 등 다양한 혁신제품 도입과 테스트베드 제공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업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자원 선순환 고리 상용화 모델 구축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매년 9월 6일 주관하는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순환골재 재활용을 통한 자원 선순환 고리 구축의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



다. 이번 수상은 아스팔트 포장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해 순환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포장에 사용해 자원 선순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는 공단의 이 같은 순환골재 재활용품 활용 사례를 자원의 선순환 고리 구축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하고, 이번 정부포상을 적극 추천했다. 문기봉 이사장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검증하여 우선 적용하고, 자원 선순환을 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과 협력해 상용화 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물 관리 우수사례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2024년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물 관리 우수사례 및 우수기술 실용화 사례 발표로 수질개선 분야 최우수상(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하수·물재이용 분과의 우수사례·신기술 발표대회에서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을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 밖에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인 구매상담회 개최, 안전 및 보건 컨설팅, 해외 비즈니스 매칭 사례 등을 알려 대한민국 물 산업의 발전을 도모했다. 문기봉 이사는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서 하·폐수처리 우수 기술을 자체 개발, 홍보하고 외부 기술을 수용하는 등 대구의 하수도 운영 효율 제고와 물 환경 보전에 다양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